



▲운정3지구 사청 피해자 비대위가 GTX운정중앙역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비대위)

운정3지구 비대위, “LH 개혁” 촉구

GTX운정중앙역 잔디공원에서 집회 LH,시행사취소로 계약금 등 회수 비대위 “2351억원 환원해야”주장

운정3지구 사전청약(사청)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17일 GTX운정중앙역 인근 잔디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사청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회복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회수한 시행사 계약금 등의 사회 환원을 촉구했다.

18일 비대위는 사전청약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그에 따라 야기된 내 집 마련의 기회 상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지금까지 달려왔다면서 운정3지구 사전청약 피해자와 파주시민의 요구가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집회에서 비대위 최동혁 위원장은 “현재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파주 운정 3지구 주상복합 1~6블럭 단지 위주로 비대위 활동이 이뤄지고 있으나 전체를 대변하기에는 부족한 상태라서 이젠 주박을 품은 물항기 마을을 포함해 운정 3지구 및 운정신도시 주민 모두의 참여가 필요한 시간”이라며 전체의 참여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운정3지구 GTX운정중앙역 역세권 특별개발계획 경쟁입찰을 통한 땅장사로 주상복합아파트(주박) 사전청약 사업이 취소 및 해약되면서 계약금 1181억 원을 회수했고, GTX운정중앙역을 중심으로 한 일대 상업부지도 해지되면서 880억 원이 회수 예정이며 일대 업무복합용지를 포함한 추가 이익까지도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업·업무용지를 포함해 총 2351억 원이 피해자와 지역사회에는 아무런 환원없이 사라질 위기”라며 “따라서 이 자금을 운정중앙역 역세권개발과(특별계획구역) 운정3지구 개발(지하공공보행통로, 공원,도서관, 공공시설 등에 실제로 기부채납 및 환원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비대위는 이 자리에서 성명서를 지역구 국회의원과 소통을 진행하는 자리에 비대위 서명과 운정중앙역세권 개발 의지를 함께 전달할 예정”이라며 “비대위 활동은 현안 해결을 넘어 아이들과 가족 그리고 운정신도시의 미래를 위한 일이기에 LH가 독식할 수도 있는 2351억 원을 지역 개발과 발전에 실제로 환원될수 있도록 운정신도시 지역 주민 전체가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먼저 ‘LH는 운정중앙역 GTX-A



인근 11개 필지를, 최고가 경쟁 입찰로 매각해 엄청난 이 하며,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사전청약자와 운정3지



▲운정3지구 사청 피해자 비대위가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사진 위) 행진하고 있다. (사진=비대위)

득을 챙겼다’며 LH의 무책임과 땅장사 구조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그럼에도 LH는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를 불모로 삼아 계약을 밀어붙였고, 사업이 취소되자 계약 해지금 2351억 원을 챙겼으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같은 부지를 재매각해 또다시 수익을 얻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한 후 ‘이것은 공기기업의 책무가 아니라 ‘땅장사’와 ‘계약금 장사’에 불과

구 주민이 떠안아 실질적 피해자는 수천 명에 달한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토로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하는 제안을 통해 운정3지구를 LH 개혁의 상징적 모델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운정3지구 에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파주의 미래가 지켜질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함께 싸우겠다고 천명해 주목을 받았다.

최정석 기자 standard@gsdaily.co.kr